

아프리카 경제 전망 보고서 2018 (African Economic Outlook 2018)

2018 년 아프리카 경제 전망 보고서 장별 요약

<1 부 거시경제 발전과 구조변화>

제 1 장 아프리카의 거시경제 성과 및 전망

2017 년 아프리카 경제 성과를 검토하고 2018-2019 년의 GDP 성장을 예측하였다. 성장 평가를 토대로 거시경제로부터의 충격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취약성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개발 금융에 끼친 영향을 논하였다.

○ 실질 생산 성장이 2017 년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 실질 생산 성장률이 2017 년 3.6%로 지난 해 2.2%에 비해 상승했고, 2018-2019 년에는 4.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가 지난 20 년에 비해 외부 경기 불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 특히 비자원집약적경제국이 예상보다 빨리 성장을 회복하며 아프리카의 경제탄력성을 높였다.

• 장기적인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 수익이 감소하면서 거시경제 불균형이 악화되는 와중에 성장 회복은 순상품수출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상품가격의 초장기 호황인 슈퍼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여러 국가의 주요 수출 소득이 감소하고 계획된 투자가 지연되는 등 외부 상황의 악화로 자원의존적 경제국 및 다른 국가의 재정 취약성이 드러났다.

○ 세계 경기 침체가 2016 년 중반부터 완화되면서 아프리카의 지역의 경제 전망은 밝아졌지만, 여러 국가가 여전히 주요한 거시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다.

• 상품 가치는 다시 올랐지만 경제 위기 이전의 수치를 미치지 못했고, 아프리카에 대한 전통적·비전통적인 수출 요구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달러 금리는 점차 상승하여 자본 비용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곳곳에서 외부부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참고) 외부채율의 증가: 외부의 공적개발원조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인프라와 사회적 영역의 개발을 위한 부채 욕구가 높아지면서 여러 아프리카 국가 정부가 국제 자본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결과적으로 상업적 채무가 늘었다. 부채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전통적인 위험 수준을 넘지 않았다.

• 대부분 외부자금으로 지원되는 지역의 인프라 투자 유치는, 현지 통화로 발생하는 매출원이 부채 상환 만기 시까지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

○ 재정 정책이 최근 급증한 공공투자의 성장 촉진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고, 전 지역에서 빈곤 감소, 보건, 교육 등에 진출하는 흐름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

- 단기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유연한 실질환율 대응과 신중한 수요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 아프리카 14 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유로에 대한 환율이 고정된 CFA 프랑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2015 년 초부터 약 20-40% 하락했다. 실질환율의 절하가 중요하겠지만, 미국 달러의 강세를 고려했을 때 경쟁적 원화 가치의 저하가 반드시 수출시장에서 가격 이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더불어 국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역내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 진행 중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유지 및 관리하며, 준비 중인 프로젝트로 다른 수요에 균형 있게 대응해야 한다. 공공 부문 임금 등의 경상비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 중장기 재정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제 개혁이다.
- 최근 수십 년간 역내 수입 조달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GDP 대비 조세율은 25%(인프라 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정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 성장으로부터의 수익과 여러 국가의 급격한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높은 한계 세율을 올리기보다 세금 제도를 얹어 먹는 만연한 면세와 탈세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어떠한 재정적 결정도 간단하지는 않다. 심히 정치적이고 결과적으로 분배와 복지의 문제와 얽혀있다. 일관성 있고 공정한 재정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외부적 상황의 호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 2 장 성장, 고용, 아프리카의 빈곤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의 성장 추세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조로서 경제의 근간을 바꾸고 아프리카의 고용과 사회 통합에 기여했는지, 빠른 성장이 지속적인 고용 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답하며 아프리카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고용 및 빈곤 문제와의 관련성을 논한다.

- 아프리카의 지난 25 년간의 성장 동력은 역사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 자료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 3 분의 2 이상의 국가들의 1 인당 소득이 1950-2016 년 사이 8 년 연속 3.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했다.
- 일부 국가는 경제 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성장을 뒷받침했다. 모리셔스,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의 국가에서 특별 경제 구역과 산업 단지를 활용한 전략은 아프리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 일부 국가의 성장 가속은 자본의 축적보다 총요소생산성(TFP)의 증대로 기인했다. 이러한 근거들은 '중진국의 함정(middle-income trap)'에 대한 주장에 어긋난다.
- 구조 개혁, 안정적인 거시경제 상황, 활발한 역내 수요가 자원집약적경제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 저생산성 산업에서 고생산성 산업 분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긍정적인 구조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매우 느리다.

- 최근 실증 연구 결과 아프리카의 최근 성장과 빈곤 감소는 농업 노동력의 축소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00 년 초반 이래로, 그리고 농촌 지역 여성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 노동력이 저생산성의 농업으로부터 고생산성 서비스와 제조업으로 이동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 제조업의 고용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의 제조업 부문 고용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 성장 가속이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 세 단계의 성장 가속을 경험한 국가들은 성장 가속이 없었던 국가들에 비해 연간 1.3% 빈곤 지수와 0.2%의 불평등 지수가 감소했다.

(참고) 성장 가속: 8 년간 1 인당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이 3.5% 이상이고, 지난 8 년 대비 2% 이상 상승한 기간으로 정의한다. 또한, 가속 기간 마지막 연도의 실제 GDP 가 가속 기간 시작 이전보다 높아야 한다.

(Hausmann, Pritchett, and Rodrik; 2005)

○ 그러나, 고용 성장은 노동 인구 증가에 비해 미비했고, 특히 젊은 층 인구의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계속되고 있다.

- 2000-2008 년 사이 고용이 연평균 2.8%로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 5 개의 국가(알제리, 부룬디, 보츠와나, 카메룬, 모로코)만이 4% 이상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 2009-2014 년에는 느려진 경제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연평균 3.1%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평균 경제성장률보다 1.4% 낮은 수치다.
- 고용의 더딘 성장은 특히 여성과 청년층(15-24 세)에 영향을 주었다. 아프리카의 청년 인구는 2015 년 2 억 2600 만 명에서 2030 년에는 42% 증가하여 3 억 210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적 시사점

- 성공적인 경제 성장의 첫 단계에서는 생산성 증대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성장 가속은 전통 산업 분야에서 근대 산업으로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대적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2 부 인프라 금융: 전략과 수단>

제 3 장 아프리카의 인프라: 큰 잠재성, 작은 영향력

○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수적이다.

- 미비한 고용 성장은 빈곤 감소를 더디게 했다. 아프리카 저소득층 인구비율은 1990-2012 년 사이 56%에서 43%로 감소했지만, 저소득층 인구수는 증가하였다. 불평등 또한 증가하여 지니계수가 1993-2008 년(가장 최신 자료) 0.52 에서 0.56 으로 증가했다.
- 향후 몇십 년 후 아프리카는 가장 젊고 인구가 많은 대륙이 될 것이다. 2013 년 6 억 2000 만인 노동 인구수는 2063 년 20 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아프리카 청년 인구는 연간 1000-1200 만 명으로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 산업화를 더디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한 가지로 전력, 수도, 교통서비스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면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막강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 전체의 인프라 수요가 연간 1300-1700 억 달러에 이르고 재정 격차는 680-108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새로운 추정치를 제시했다. 이는 프랑스 개발청과 세계은행이 예측한 연간 수요 930 억 달러와 연간 재정 격차 310 억 달러 보다 현저히 높다.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세계 금융 상황이 호전되는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아프리카의 투자자들이 갖는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금융 수단이 개발되고 있다. 전 세계 인프라 투자금 중 민간 금융이 5-1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회사, 연금 펀드, 소버린 국부 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100 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일부의 초과 저축과 저수익성 자원만으로도 아프리카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생산적이고 수익성 있는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아프리카 인프라 금융: 새로운 전략, 방법, 금융 수단

-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 자금 지원을 위해 선진국의 초과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수익적인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시대의 역설이다.
- 아프리카와 그 외 다른 저개발국가에서 제조업의 GDP 비중이 증가하면, G20 국가의 투자는 약 4850 억 달러, 가계소비는 약 1 조 4000 억 달러로 증가시킬 수 있다.
- 아프리카와 그 외 다른 저개발국가의 산업화가 G20 경제에 주는 효과도 크다. 자본과 소비자 상품의 직접 수출이 920 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르는 간접효과로 즉, G20 수출업자들과 역내 생산자들의 지역 내 연계를 고려하면, G20 생산이 1320 억 달러로 증대될 것이다. 이로서 G20 경제에서는 750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해외 원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 아프리카는 연간 5 억 달러의 세금을 거두고 있고, 해외 원조 5000 만 달러, 송금 6000 만 달러, 해외직접투자(FDI) 5000 만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 조 달러 이상의 기금이 기관 투자자들과 상업 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인프라 대출이 아프리카 투자자들에게 주요 자산 등급으로 널리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몇몇의 국가가 다양한 금융 방법을 활용하여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인프라 자산(Infrastructure asset)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모으고 정부나 개발 금융 기관의 보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민간 부문의 리스크 인식을 개선하고 펀딩에 물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 상황과 생산적 경제 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 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
- 프로젝트 풋옵션부사채(puttable bond)는 신흥경제국의 연금, 생명 보험 펀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지원 소버린 펀드 등을 동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장기적 투자 펀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므로 금융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여러 독자적인 금융 기관에서도 리스크 관리, 신용 개설, 금융 협정 지원 보증, 민관합작투자사업(PPP), 국내외 자본 시장 접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투자보증공사(MIG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GuarantCo, 나이지리아의 InfraCredit 등)
-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이 건설 후 수익 증가 시점에서 풋옵션을 제공하고 보증 프리미엄을 받는 방법으로 장기적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MDB 가 건설 및 시행 초기 부담을 안고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상업 대출로 보완한다. 정부가 프로젝트 초기 단계를 지원할 채권 및 전환 사채가 필요하다면 MDB 가 단기적이고 유연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인프라 시설과 초기 프로젝트를 지원할 채권은 특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지원된다. 건설 후 초기 위험이 줄어들면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팔아 수익금으로 상환한다.)
- 성과를 기준으로 한 장기적 PPP 협정으로 기본적인 서비스 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공적자금으로 발생 비용을 대체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 연결 비용과 관세만으로 모든 비용을 감아야 하는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공 펀드와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각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두어야 한다. 많은 정부가 한정된 자원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너무 많은 자금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에 쓰이면서 수익은 낮아지고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든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부족한 예산으로 최고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